



경제통통

FOCUS

- 서울시, 서울대와 SW·빅데이터 연구, 인력양성 허브 구축 협력

ZOOM IN

- 서울시, '동대문 쇼룸' 오픈 ... 신진디자이너가 K-패션 이끈다
- 약 535억 원 규모의 e스포츠 전용경기장 서울 e-스타디움 개관

HOT ISSUE

- 옥상텃밭에서 재배한 루꼴라로 만든 화덕피자 맛보세요
- 청계광장에 밤도깨비 만나러 오세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고태경 kotaekyung@seoul.go.kr

FOCUS | 01

서울시, 서울대와 SW·빅데이터 연구, 인력양성 허브 구축 협력

서울시는 지난 4월 26일(화)에 서울대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서울시-서울대학교 서밋(Summit)’을 열고, 박원순 시장과 성낙인 총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서밋은 『2016 서울 일자리 대장정』 중 하나로 열렸으며, 시와 대학이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고 서울대학교의 현장 제안사항과 아이디어, 시 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공유해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찾아나가는 자리였다.

빅데이터 활용으로 도시문제 해결 ‘어반 데이터 사이언스 이노베이션 캠퍼스’ 조성 협력

서울시와 서울대학교가 IT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SW·빅데이터 교육과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연구를 통해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어반 데이터 사이언스 이노베이션 캠퍼스(가칭)’를 오는 10월 개관될 예정인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수 청년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청년 펀드 플랫폼’ 구축에도 상호 협력하는 것은 물론,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조성한 322억 원 규모의 펀드 등과 연계해 서울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서울대는 청년 창업기업에 교육, 멘토링, 마케팅, 창업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 펀드 플랫폼’ 상호협력 및 신림동 고시촌 리모델링형 셰어하우스 클러스터도 모색

아울러, 최근 로스쿨 도입 등으로 공실(빈방)이 증가하고 있는 신림동 고시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밀집지역에 1인가구용 셰어하우스를 클러스터화하는 방안과 시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과 연계하여 공실률이 높은 고시원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 이를 주변시세 대비 50% 수준의 ‘반값 월세’로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서울시는 대학의 다양한 제안사항에 귀 기울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대학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발굴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육 실시 ▲청년 창업생태계 구축 ▲문화자산 공유 등을 상호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ZOOM IN | 01

서울시, '동대문 쇼룸' 오픈 ... 신진디자이너가 K-패션 이끈다

“최신 패션 트렌드를 압축적으로 보고·사고 싶은 국내외 패션 바이어들은 서울의 동대문 쇼룸으로 가라”

서울시가 우수한 신진디자이너 100여 명의 패션 브랜드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해외진출 공동비즈니스 플랫폼 역할까지 수행하는 '동대문 쇼룸(showroom)'을 4월 25일(월)에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내에 오픈했다. 동대문 쇼룸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운영하는 공공쇼룸이자, 2015년 일자리대장정에서 제안되었던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시즌별 콘셉트에 맞는
패션상품을 한 공간에
콜라보 형태로
전시, 상담, 수주**

동대문 쇼룸에선 시즌별 콘셉트에 맞는 신발, 가방, 모자 등의 패션잡화와 의류, 액세서리 등의 패션 상품을 한 공간에 콜라보 형태로 전시해놓고, 국내외 바이어들이 현장에서 상담부터 수주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시는 SBA(서울산업진흥원)가 위탁한 전문운영사(리블리어반)를 통해 쇼룸에 입점한 신진디자이너와 패션 중소기업인에게 필요한 상품 기획, 제작, 유통, 컨설팅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영역까지 원스톱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동브랜드
'차오름' 런칭**

시는 동대문 쇼룸 입점 브랜드를 아우르는 공동브랜드(BI) '차오름'도 론칭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가 판로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동대문 쇼룸의 제품들은 '차오름'의 이름을 앞세워 중화권 시장을 비롯한 빅바이어 유치에 나서게 된다.

쇼룸 상품 전시는 연간 200여 개의 서울소재 패션부문 중소기업·디자이너·예비창업자 브랜드 풀을 모집해 놓고 시즌별로 콘셉트에 맞는 패션샘플을 편집해 전시하는 순환 입점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간과 장비는 물론, 상품 기획, 제작, 컨설팅, 유통, 판매, 해외 판로 개척까지의 원스톱 지원은 전문운영사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동대문미래창조재단과 협력하여 샘플제작에 경제적 부담을 겪는 신진·예비창업 디자이너에게 패턴·샘플 제작이 가능하도록 공간과 장비를 지원하고, 우수 봉제공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활한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SBA와 '한국섬유수출입조합' 간 업무협약을 맺어 차오름 디자이너가 원단 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신의 소재 정보와 트렌드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ZOOM IN | 02

약 535억 원 규모의 e스포츠 전용경기장 서울 e-스타디움 개관

약 535억 원 규모의 e스포츠 전용경기장인 '서울 e-스타디움'이 4월 30일(토) 개관했다.

관객·선수편의성, 방송적합도 등 최고의 시설을 갖춘 e스포츠 전용경기장 개관

서울 e-스타디움은 서울시가 275억 원, 문화체육관광부가 16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준공되었으며 운영사업자인 CJ E&M이 방송장비 구축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에 약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 총 535억 원 규모의 경기장이다.

최고의 경기장으로 선보이기 위해 수차례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조성과 과정에서 반영하였으며 넓고 편안한 객석과 뛰어난 음향으로 관객들에게 영화관 수준의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선수대기실 확장 및 선수 전용 화장실 마련 등 선수들의 편의시설도 대폭 향상시켰다. 특히, 경기장 전체에 스튜디오 수준의 방송환경을 조성하였고, 기가인터넷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경기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e스포츠경기장으로 태어났다.

중앙정부-지자체 -민간기업 협차공간 →세계 e스포츠팬 모이는 엔터투어먼트 공간 발전 기대

서울시는 서울 e-스타디움이 단순히 e스포츠경기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넘어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엔터투어먼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e스포츠 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경기를 관람하고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e스포츠는 10대와 20대가 주로 즐긴다는 점과 아직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측면에서 전도유망한 청년산업이며, 관객들의 몰입도와 참여도가 높아 프로스포츠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세간의 부정적 인식이 있는 만큼 e스포츠의 다양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활성화시키고 보여드리는 노력을 통해 e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산업과 문화가 동시에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상텃밭에서 재배한 루꼴라로 만든 화덕피자 맛보세요

옥상텃밭에서 재배한 루꼴라를 재료로 셰프가 만들어주는 샐러드와 화덕피자는 어떤 맛일까.

서울시는 텃밭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로컬푸드 문화 확산을 위해 제철 농산물을 이용하는 요리교실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프로그램을 오는 10월까지 광흥창 옥상텃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문을 여는 '텃밭농산물 밥상나눔'은 건강하게 재배한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집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잎채소들을 활용한 요리방법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텃밭농산물 밥상나눔은 ▲옥상텃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활용법을 소개하는 공중텃밭 일일밥상, ▲채소소믈리에와 셰프를 초청해 제철 음식을 재료로 운영하는 요리교실 ▲사회적 약자와 밥상을 나누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농산물 나눔밥상 등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참가비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활동내용 및 일정					
	5/12	6/9	7/7	8/4	9/8	10/6
공중텃밭 일일밥상	텃밭작물 레디쉬를 활용한 밥상	루꼴라를 활용한 샐러드 및 화덕피자	딜(허브)과 함께하는 생선구이법	잎채소들로 쌈 싸먹는 옥상버베큐	바질페스토를 활용한 요리	잎채소들로 쌈 싸먹는 옥상버베큐
제철음식 요리교실	루꼴라를 활용한 피자만들기	채소소믈리에와 함께하는 건강한 채식 1	디톡스 주스 만들기	채소소믈리에와 함께하는 건강한 채식 2	가지를 활용한 요리	말랭이 간식 만들기
농산물 나눔밥상	나눔밥상 및 직거래장터 운영	나눔밥상 및 직거래장터 운영	나눔밥상 및 직거래장터 운영	나눔밥상 및 직거래장터 운영	나눔밥상 및 직거래장터 운영	나눔밥상 및 직거래장터 운영

10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텃밭농산물 밥상나눔 프로그램」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홈페이지(<http://cafe.naver.com/pajeori>, <https://facebook.com/pajeori>)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도시농업과(☎2133-5409) 또는 파릇한젊은이(☎010-3009-1253)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HOT ISSUE | 02

청계광장에 밤도깨비 만나러 오세요

특별한 금요일 저녁을 보낼 수 있는 '밤도깨비 야시장'이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사랑, 선물, 가족, 감사'를 키워드로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3일간 운영되었다. 올해 3월 개장한 여의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장한 '서울밤도깨비야시장@청계광장'은 5월, 7월, 9월, 10월에 각각 다른 주제와 콘셉트를 가지고 시즌마켓으로 운영된다.

다양한 수공예품과 푸드트럭 장터, 흥겨운 거리공연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었으며, 공연무대에서는 기타로 연주하는 버스킹 공연과 가족단위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다. 서울 밤도깨비야시장의 대표 마스코트이자 청계광장 곳곳을 누비며 거간꾼 역할을 하는 '홍도깨비'도 만나볼 수 있는 등 재미있고 이색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다.

**5월 27일(금)
~28일(토),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여의도 밤도깨비
페스티벌**

올해 3월, 가장 처음 문을 연 야시장,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여의도'가 매주 금요일~토요일 2일간 진행 중이며, 5월 27일(금)~28일(토)에는 밤도깨비야시장 페스티벌이 열렸다.



밤도깨비야시장 페스티벌에서는 외국인 플래시몹 퍼레이드와 국내 최초의 모바일 푸드코트를 구현한 푸드트럭 30대의 '메뉴 맛보기 행사' 등 야시장만의 흥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었다. 또한 핸드메이드 마켓에서는 구매고객에게 팔찌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되었다.